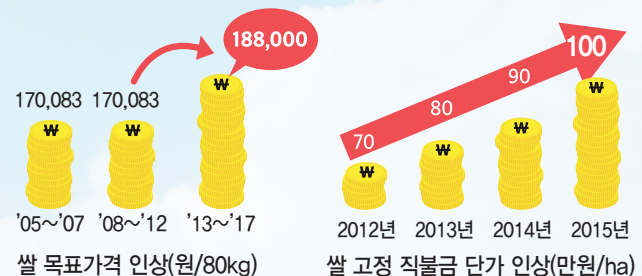




정부는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5만 2천원으로 결정하는 등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시장에서 쌀 생산량, 소비량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소득은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 및 변동직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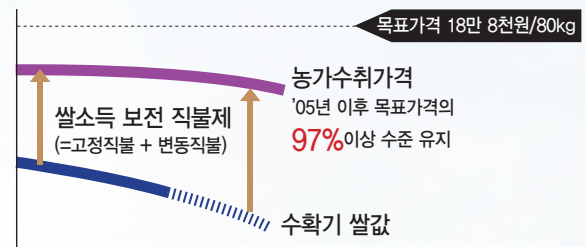
◎ 정부는 그동안 쌀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 '05년도 이후 농가가 실제로 받는 쌀값은 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해 목표가격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4년도의 경우 80kg 기준 수확기 평균 쌀값 166,198원이었지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더해서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84,730원으로, 이는 목표가격 188,000원의 98.3% 수준입니다.

*농가수취가격 = 수확기 쌀값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한편 자연재해, 수급불안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정부는 공공비축제를 통해 일정 물량의 쌀을 미리 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05년부터 매년 일정 물량(36~37만톤)을 정부가 농가로부터 직접 사서 비축해왔고, '14년부터는 해외공여용 공공비축물량으로 3만톤을 추가하여 올해는 총 39만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부 보유 쌀 재고를 가격조절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확기 쌀값 및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농정을 바탕으로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